은혜 감리교회...

✝ **은혜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은혜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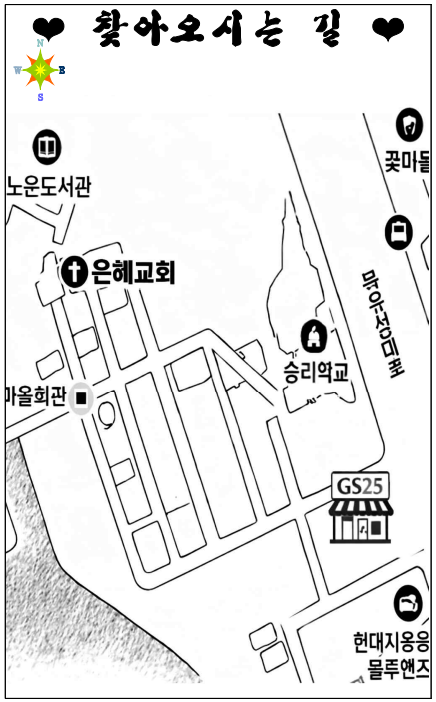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로서
대전 성시화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역동적인 예배와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감격적인 찬양**을 통해 매 주일 회복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웃 사랑과 선교에 전력함으로 대전에 영적 새 바람을 일으키기를
열망하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예 배 안 내 ❤

주 일 낮 예 배 : 오전 11 : 00
주일오후찬양예배 : 오후 1 : 20
수 요 기 도 예 배 : 오후 7 : 00
새벽기도회 (월~금) : 새벽 5 : 30
(부르짖는 새벽, 은혜 충만한 하루)
교회 학교 (주일) :
중·고·청 예배(토) :
화요 기도회 (화) :
(눈물의 기도는 삶의 눈물을 멈추게 한다.)
성 경 공 부 :
전도수색대 :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교회

❤ 찾아오시는 길 ❤



예배의 죽고 예배의 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교회

기 독 교
대한감리회

은 혜 교 회

표어 :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빌2:13)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설립 목적 선언문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영광
돌리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는데 있다.

예배와 은혜에
자리로 나오세요

은혜교회 5대 핍 정신

1 . 말씀의 떨림(흥분)을 받자.
1 . 그리스도인의 끌림(매력)을 갖자.
1 . 어울림(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자.
1 . 이웃들에게 울림(감동)을 주자.
1 .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도록 몸부림(다양한 시도)을 치자.

담임목사 **황 규 현**

은퇴목사 : 이 상 민 반주자 : 전소영, 조유리

305-8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5번지 42-7
☏. 교회 : (042) 822 - 8474

주일 낮 예배순서

오전 11 : 00 **집례** : 황 규 현목사

찬 양 인 도 ---------- 오 윤 호집사
주님의 보혈 ---------- 다 같 이
★경 배 찬 송 ------ **38 장** ------ 집 례 자
★교 독 문 ------ **교독문105 번** ------ 다 같 이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예 배 찬 송 ------ **10 장** ------ 다 같 이
한 마음 기도 ---------- 허 명 주권사
성 경 봉 독 -- **창세기 4 : 6 ~ 9** -- 조 유 리집사
특 별 찬 양 ------ **220 장** ------ 다 같 이
말 씀 선 포 ---------- 황 규 현목사

제목 :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통 성 기 도 ---------- 집 례 자
교 회 소 식 ---------- 집 례 자
헌 금 봉 헌 ------ **218 장** ------ 전 소 영권사
★사명 선언문 ---------- 다 같 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 백 **삶 속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다 같 이
살겠나이다. 아멘!

★결 단 찬 송 ------ **455 장** ------ 다 같 이
★축 도 ---------- 황 규 현목사

교회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하시면 됩니다.

교 회 소 식



❤ "내 힘들다" 거꾸로 읽어 보세요. "다들 힘내"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교회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1 . 은혜교회 성도들의 사명 선언문

1 . 은혜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죽고 예배의 사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
1 . 은혜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 전도 중심의 삶을 최우선순위로 하며 산다.
1 . 은혜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양육 받아 성화 되어 가르치는 삶으로 말씀을 나타내고 이루는 삶을 산다.

2 . 알 림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서 사랑과 감사함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삽시다.
2) 2026년 표어 :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빌2:13)
방관자에서 전도자로, 구도자에서 기도자로, 기도자에서 동참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3)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 감사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감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 2026년 11월 15일(주)~18일(수) 양촌 열두문 진주교회 부흥회
2026년 11월 21일(토) 안산 응답교회 부흥회

3 . 은혜교회가 부흥하려면

1,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입 다물라. **2,** 미온적인 사람은 불을 붙여라. **3,**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라. **4,** 사이가 나빠진 사람은 화해하라. **5,** 낙담하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라. **6,**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고백하라. **7,** 실망한 사람은 용기를 내라. **8,**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 불만을 해소하라. **9,** 그리스도의 장병들은 일어나라.

죄의 사슬에 묶인 자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 감리교회

은혜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를 통해 성도가 하나 되고 성장을 통해 장성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은 물론 사역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며 증거를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비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 성경적인 삶의 적용과 헌신, 팀워크 섬김, 탁월성, 단순성, 자율성 각 사람의 은사 열정 그리고 성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은혜교회의 비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0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1 . 우리는 삶 속에 성경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중시합니다.
2 . 우리는 말없이 헌신하는 삶을 중시합니다.
3 . 우리는 팀워크를 중시합니다.
4 . 우리는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삶을 중시합니다.
5 . 우리는 각 개인의 탁월성을 중시합니다.
6 . 우리는 충성 봉사하는데 단순성을 중시합니다.

7 . 우리는 각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8 . 우리는 각 사람의 은사를 중시합니다.
9 . 우리는 각 사람의 열정을 중시합니다.
10 . 우리는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여 섬기기를 소망하는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보석들을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가 시작되는 곳 은혜교회로 나아오십시요!

주일 오후 예배순서

◉ 오후 1 : 20 **집례** : 황 규 현목사

경배찬송 / 다 함 께
고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나가는 문이다.
기 도 / 통 성 기 도
본문말씀 / 베드로전서 4 : 10
특별찬양 / 누구시나
말씀선포 / 황 규 현목사

제목 : 성령과 은사

가족찬양 /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찬양 축제'
찬 양 / 446 장 /
교회소식 / 집례자 /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꼭 실천합시다.
주기도문 / 다 함 께

성도들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수 요 예 배	새 벽 기 도 회
♥ **오후 7:00 집례 : 황규현**목사	♥ **월~금 새벽 5:30**
찬 송 / 다 함 께	**성 경 통 독**
기 도 / 통성기도	**부르짖는 새벽**
본문말씀 / 마태복음 6 : 33	**은혜 충만한 하루**
제 목 / 누구를 선택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교회소식 / 사 회 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찬 송 / 450장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3)"
주기도문 / 다 함 께	

다 음 주 예 배 위 원

	주일 낮 예배	예 배 봉 사	맡 은 이 들
대 표 기 도		**주일 낮 특송**	
안 내 위 원	서 현 자 권사	**성 경 봉 독**	윤 성 현 집사
헌 금 위 원	허 명 주 권사	**성 전 청 소**	전 소 영 권사

은혜교회의 예배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중한 보석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한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원소에서 하나는 아름다움의 최고에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보잘것없는 검은 숯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원소 그 원소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 지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느냐? 아니면
숯으로 만드느냐는 사람의 선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삶은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움을 통째로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이아몬드같이 만들어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귀중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 당신을 초청하여 섬기기를 소망하는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보석들을 만드는 길로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외면하거나 관심 없다 말하지 마시고 함께 손을 잡고 즐겁고
행복하게 귀하고 귀한 보석들로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은혜교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 신한은행 100 - 037 - 037167

은혜교회로 나아오십시오. 언제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전도입니다.

병실 문 앞에서

몇 해 전 한 종합병원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빨리 연락해야 했습니다.
의료진이 수소문 끝에 아들의 연락처를 찾았지만 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와 왕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상처 주는 말과 행동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하지? 아버지는 나를 돌보지 않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선 아들은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서운함과 분노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 한채 누워 있는 늙고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수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왔잖아요."
며칠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외면했더라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병원으로 향했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가? 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마음을 물으신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관심과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가족이 어디 있느냐? 네가 외면하고 있는 이웃은 어디 있느냐? 위로가 필요한 성도는 어디 있느냐?"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말하는 가인이 아니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보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형제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찾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두말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전도는 결코 설명이 아니다. 전도는 단지 관계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